

## “방생은 스스로 해탈하여 연화장의 세계로 이르는 길”



###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문경에서 전국 사원 합동으로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전국에서 스승과 교도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 날인 7월 16일 경북 문경에서 합동으로 봉행됐다. 총기 46년 충북 단양에서의 합동 법회 이후 7년 만이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법회에 앞서 전국 신정회 지회장을 포함하는 각 사원 신정회 임원들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50개의 연꽃 위에 초를 켜 본존에 예를 올리며 신심을 가다듬는 엄숙함을 더했다.

대형 스크린으로 서원당 본존을 그대로 모셔놓은 듯한 법석이 마련된 문경실내체육관은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스승과 교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산 운천사, 대전 만보사 등은 미리 준비해온 음식으로 다 함께 점심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교도들 사이로 종령 지성 대종사와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합장례를 올리며 입장하는 가운데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로 법회가 봉행됐다.

마니합창단, 만다라합창단, 부림합창단의 연합 음성공양은 대법회의 장엄함을 더하며 만다라의 세계를 열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유시문을 통해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방생은 이러한 자각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고 설파하며,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싹트게 해 주고,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더불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생이고 이것이 바로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 자신의 방생이라는 자기 방생을 통하여 아집과 아상, 편견과 사된 욕심을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며 오늘 법회의 의미를 피력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탈절을 맞아 우리들은 해탈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라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그동안

의 불공 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석이 되기를 서원한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오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오늘 원만 회향과 더불어 스승님과 교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회서울경인지회 박정희 지회장은 전국 교도를 대표해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발원문을 낭독했다. 발원문에서 박 지회장은 “이 공덕이 시방세계에 널리 미쳐져서 모두가 해탈을 얻게 하시고, 서방정토 왕생극락 연화세계 이르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지심으로 발원 하나이다.”며 두손을 모았다.

2부 순서에서는 전문 진행자의 도움으로 각 사원에서 준비해온 장기자랑으로 인간방생의 무대를 활짝 열었다. 전국 열 세팀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들은 열띤 응원과 호응으로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 나갔다.

문경=박재원 기자/화보 기사 2, 3면

### 저도 형처럼, 저는 부처님처럼...

‘불교총지중 한마음 여름캠프’ 성료



청소년을 위한 2024년도 ‘불교총지중 한마음 여름캠프’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용인 일대에서 청소년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캠프에 앞서 봉행된 입재 불공에서 참석 청소년들이 두 손 모아 합장례를 올리고 있다. 기사 12면

#### 종/조/법/어

법계에는 길흉화복 선악존망의 엄연한 기관이 서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받게되는 것이니라.

#### 지면안내

2·3면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화보  
5면 이달의 법문 / 벽룡사 주교 승원 정사  
12면 ‘불교총지중 한마음캠프’ 특집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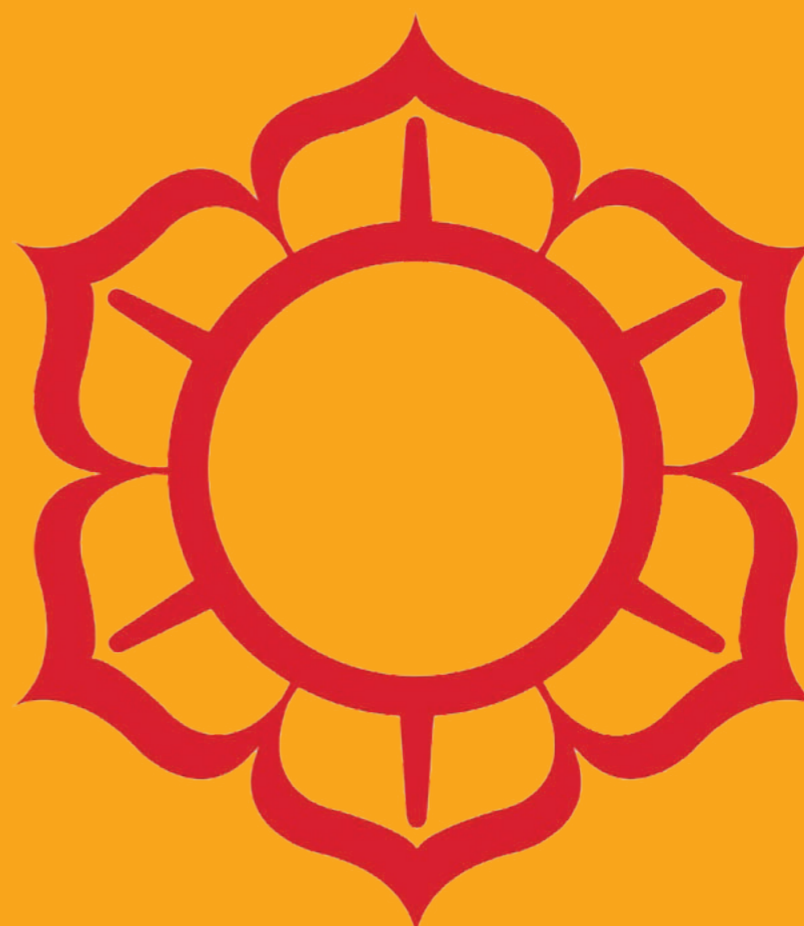
## 제44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총기 53년 9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역삼동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 정진과 참회의 불공으로 정법의 지혜와 자비를 내려 주소서





“ 이 공덕이 시방세계에 널리 미쳐져서  
모두가 해탈을 얻게 하시고,  
서방정토 왕생극락 연화세계 이르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지심으로 발원하나이다.



총지사



자석사



마니합창단



혜정사



정각사



덕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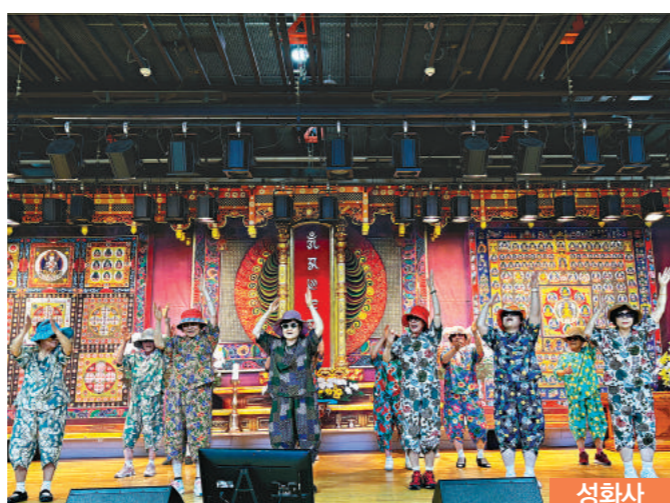
운천사



밀행사



관음사



성화사



밀인사



개천사



만보사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 밀교수행은 보리심·자비심과 공성에 대한 깊은 성찰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2절 현밀이교(顯密二敎)의 차이점(差異點)

### 1. 현밀이교(顯密二敎)의 비교(比較)

현밀이교(顯密二敎)가 근본적(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그 차이점(差異點)을 대략 밝혀둔다.

원래 불교에는 삼신(三身-법신法身, 보신報身, 응화신應化身)이 있고 교(敎)에는 현밀(顯密)이 있다. 응화불(應化佛)이 설(說)한 것을 현교(顯敎)라 함이니 말을 간략(簡略)하게 중생(眾生)들의 근기(根機)에 맞추었고, 법신불(法身佛)의 담화(談話) 이것을 밀장(密藏)이라 하는 것이니 말이 비오(秘奧)하여서 실상(實相)말이다.

현교의 계경부(契經部)는 팔만사천(八萬四千)으로 장(藏)으로 나누면 삼장(三藏), 승(乘)은 1,2,3,4,5의 분별(分別)이 있으며 수행(修行)은 육도(六度)를 종(宗)으로 하여 52위(位)가 있고 성불은 삼대겁(三大劫)을 한정(限定)으로 한다.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의 설(說)한 것을 밀교라 함이니 자성수용불(自性受用佛)은 자수법락(自受法樂)인 연고로 자권속(自眷屬)과 각각 삼밀문(三密門)을 설한 것이다. 이 삼밀문은 여래내증지(如來內證智)의 경계(境界)이므로 등각십지(等覺十地)도 능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거던 어찌 하물며 이승범부(二乘凡夫)이겠느냐. 그러므로 현교(顯敎)에서 비록 성불(成佛)을 설(說)하나 중생(眾生)의 근기(根機)를 교화(敎化)하기 위하여 설(說)하기 때문에 진실(眞實)한 성불이 없는 연고로 교도불(敎導佛)이라 하며 밀교는 실(實)로 성불(成佛)하는 연고(緣故)로 증도존(證道尊)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현교는 근기상응(根機相應)하는 수타(隨他)의 법문(法門)이고 밀교는 불(佛)이 자내증(自內證)한 지혜(智慧)의 수자(隨自)의 법문(法門)이다.

현교(顯敎)에 대한 밀교(密敎)의 특색(特色)으로 다음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인 석존(釋尊)의 설법을 현교라 하고 영원한 진리를 불경화(佛格化)한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의 설법을 밀교라 한다.
- ②. 각오(覺悟)한 내용에 대하여 말이나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현교요, 상징(象徵)을 통(通)

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밀교라 한다.

③. 현교는 장기간(長期間-삼겁三劫) 수행을 거쳐서 성불(成佛)이 가능하다고 하나, 밀교는 삼밀의 유가(瑜伽)에 의하여 현세(現世)에서 즉신성불(卽身成佛)한다고 설하고 있다.

④. 밀교는 많은 훌륭한 특색(特色)을 가지고 사람마다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현세이익(現世利益)을 주고 현교는 염불왕생(念佛往生)이나 수행각오(修行覺悟)를 주(主)로 설(說)한다.

현교(顯敎)는 심본색말(心本色末)을 주장(主張)하니 미래중심(未來中心)의 유심적(唯心的)인 불교이므로 결국(結局)은 사후불교(死後佛敎)가 되며 밀교는 색심불이(色心不二)를 주장하니 현세중심(現世中心)의 현실적(現實的) 실천불교(實踐佛敎)가 된다.

심본색말(心本色末)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현교에서 실상(實相) 모든 이치(理致)는 미묘(微妙)하다고 근본(根本)이라 하여 앞세우고 색상현실(色相現實) 모든 일은 허망(虛妄)하다고 끝이라 하여 뒤따르게 함을 말함이니 한 이치(理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하는 현교의 교리강령(敎理綱領)인 일원논리(一元論理)이다.

색심불이(色心不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밀교에서 색상현실(色相現實) 모든 일은 곧 진리(眞理)이며 실상(實相)으로 보아서 색(色)을 품안에 넣지 않고 이것이 이치(理致)라고 하는데 물(物)과 심(心)이 평등(平等)해 지는 고로 일체(一切) 세간현상(世間現狀) 그대로 불법(佛法)과 일치함을 체득(體得)하는 밀교의 교리강령(敎理綱領)인 이원논리(二元論理)이다. 또 현교와 밀교는 중생교도(眾生敎導)의 방법(方法)도 각각 다르다.

밀교의 교주법신불(敎主法身佛) 부처님은 언제나 진실법(眞實法)으로서 중생(眾生)을 교도(敎導)하고 현교의 교주(敎主)인 응화신(應化身) 부처님은 언제나 방편(方便)으로서 중생을 교도하시느니라. 법신은 본래 방편(方便)을 쓰지 못하므로 때와 근기(根機)에 따라서는 당신이 곧 응화신(應化身)으로 화현(化現)하여서 방편법(方便法)을 쓰게 되니 그러므로 화신불(化身佛)은 방편법(方便法)을 쓰기 위해서 출세(出世)하신 부처님이라 만약 진실법(眞實法)을 쓰려면 도로 법신(法身)이 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밀교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불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낯설다. 낯설면 멀리하게 마련이고 어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틀리게 바라보기도 한다.

나 역시 밀교에 관해 아는 게 많지 않아 글을 쓰면서도 매번 조심스럽다. 『종조법설집』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단편적으로 읽기는 했지만 원정대성사의 글에서 탁월한 식견과 앞선 지도력을 느낄 수 있었기에 턱없이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단원씩 훑아 보며 그 사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의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서 팔만사천법문을 설한 것이고 밀교는 법신인 대일여래 부처님이 실상의 지혜를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라 한다. 설법의 주제와 설법의 내용이 현교와 밀교의 가장 큰 차이인 셈이다. 하지만 법신불이 방편법으로 세상에 나투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 근본으로 보면 둘이 아니다. 갖가지 방편의 언어로 법을 설한 것도 궁극의 진리를 가리키고자 한 것이니 이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에게서는 한 가닥 같증이라고 해야 할까, 마음속에 늘 미진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밀교와 관련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항상 궁금했다. 내가 불교를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평생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것은 무아, 무상, 연기, 인과의 위대한 가르침으로써 중생을 구제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별개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밀교사상의 근원을 부처님의 교화 여정에서 찾고 싶었다.

<반야정로>라는 방송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불교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에, 초전법륜에서부터 대승불교로 이어진 부처님의 설법과정에 이어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24명의 대보살들에게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 밀교라고 한다. 다른 많은 경전과 달리 이 밀교의 가르침은, 수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설해진 것이 아니고 십지보살, 등각, 묘각의 경지에 오른 소수의 수행자에게 비밀리에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세세 생생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우 수행을 완성한 보살이 실질적으로 보살로서의 다음 생을 준비하는 수행법이 밀교수행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 이은 밀교를 금강승불교라고 한다는 설명이다.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로 이어진 불교 계승과 발전 역사가 한 줄로 꿰어지는 것 같았다. 밀교가 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비밀리에 직접 전수되어야 하는지 알겠다. 왜 그렇게 많은 인계와 진언으로 삼밀을 닦아야 하는지도 이해되었다. 지금 이 몸 그대로 즉신성불한다는 말이 이상이나 당위가 아니라 그만큼 다 닦아서 보살의 원력으로 다음 생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서원이 막연히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가웠다. 지옥중생을 구제하고자 지옥문 앞을 지키고 있는 지장보살을 비롯해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이야기가 확연히 믿어졌다. 반신반의했던 호법선신들의 이야기와 신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무수한 수행자의 환생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누구라도 원력이 크고 수행이 깊어지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뻐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밀교 수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초기불교의 사상과 계율을 기반으로 하고 대승보살의 수행을 탄탄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기초 없이 밀교 수행법을 닦는다면 외도가 되기 쉽다고 경계한다. 원정대성사가 밀교의식을 설명할 때 의례를 준수하고 염송을 줄이거나 진언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의례 수행을 잘못 하면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주의를 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두루 섭렵하고 체득하지 못하면 심오한 밀교의 수행법을 소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불리 하다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삼밀의 밀교수행법은 보살의 몸을 갖추고 금강법신을 이루기 위해 닦는 수행의례이기 때문이다.

원정대성사는 말씀하셨다. 밀교는 여래가 자내증한 지혜의 법문이니 등각 십지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범부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냐고 했다. 그만큼 밀교수행은 보리심과 자비심과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을 바탕으로 닦아야 하는 수승한 수행법이다.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모두 다 건지겠다는 서원을 마음에 품은 자만이 궁극에 닦을 수 있는 수행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닦고 체득한 수행자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수행력이다.

단박에 깨치는 돈오와 차츰차츰 닦아가는 점수가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근기의 차이일 뿐이듯, 현교와 밀교의 차이 또한 우열로 바라보기보다는 발심하고 정진하여 마침내 다다라야 할 수행 순서로 바라본다면 수행의 목표가 보다 분명해지리라 생각한다.

윤금선 구성작가

### 지혜의 눈

## 한형조 교수의 흔적

### 수행을 통해 가르침을 증득 불교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

유교와 불교의 이해에 깊은 흔적을 남긴 한형조 교수가 얼마 전에 입적하였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 유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고 특히 그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은 훌륭한 불교 입문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접한 꽃들의 축제>는 금강경 해설서인데 이 또한 뛰어난 저술로 생각됩니다.

한형조 교수는 철학과에 입학하여 마주한 교과과정의 서양철학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에 실망하여 스스로 불교와 유교를 탐구하였습니다. <왜 동양철학인가>라는 책은 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마련해준 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서양 철학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로 점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유대교 계통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세계의 기원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탐구의 방향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인간 진화의 과정과는 충돌됩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살피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늘 진리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즉 자아에 대해 무아를 말하는 불교는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주장하는 흐름이 있

어왔는데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대응의 결과 불교 교리의 큰 줄기가 연지에서 중관의 공으로 유식으로 변화해왔고,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는 화엄종, 천태종과 정토종의 종파 불교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선(禪)에 이르렀습니다. 불교의 이런 흐름을 보면 다른 종교와 달리 교리 변화의 진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형조 교수는 이러한 사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였는데 이를 오중(五重)의 관문(關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애써 진리를 설교한 후 불교는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 즉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證得)한 후 그 가르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리는 단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한 것이고 강을 건너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파격이 드러납니다. 타 종교는 자신들의 교리를 온갖 분야에 강제하여 오로지 한

맛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불교는 불교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교적인 것과 불교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불교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살불살조(殺佛殺祖)가 나오기도 한 것이지만... 한형조는 이를 경허 대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뜻을 얻으면 거리의 잡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고 말에서 해매면 용궁의 보배꽃 간도 한바탕 잠꼬대일 뿐이다.”

대승기신론의 “마음이 일어나면 수많은 세계가 생겨나고, 마음이 꺼지면 수많은 세계가 사라진다. 심생즉중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 심멸즉중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는 이 세계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든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서양 철학의 관념론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이 ‘나’의 관념에 의해 이 세계가 실재할 뿐이라는 주관적 관념론이나 신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객관적 관념론 둘 다 불교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는 유물론

과도 다릅니다.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의 소멸을 벗어나려고 수많은 욕망을 펼치지만, 결코 생사의 순환 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객관적 세계를 부정하기보다는 만법유식(萬法唯識)의 입장에서 세계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시작과 끝을 설정하고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식(識)에 해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재단하는 ‘나’만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욕망이 오히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온(五蘊)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순환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생사로 끊어놓고 스스로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형조 교수의 글에서 느낀 점을 나름의 단견(短見)으로 말해보았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이달의 법문

# 삼독심·탐진치 없는 사무량심, 진정한 수행의 '영험'

성도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신지요? 무더위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쌍웃파니까야의 소라고동(법라) 소리 경 [S42:8 Saṅkhadhama-sutta]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날란다에 계시실 때 니간타 나타삿따의 제자인 촌장 아씨반다까삿따에게 그들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촌장은 자기의 스승인 니간타 나타삿따는 제자들에게 “누구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다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사된 음행을 한다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명이 이끄러진다.”라고 가르친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지옥에 갈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많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명이 이끌려 진다’는 논리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행을 저지르는 시간보다 그렇지않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가르침은 그 스승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과거 잘못 때문에 나는 지옥이나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게 만들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존] “촌장이여, 그와 같은 스승에 대해 그 제자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적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악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촌장이여 그는 그 말을 버리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 체득한 영험이 무엇입니까?

수행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줄어들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은 많아집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라 살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음은 조건 지어져 있어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욕심내고 화내며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마치 쳇바퀴 돌 듯 윤회의 사슬을 못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수행이 과거의 악행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현재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흙탕물이 가득 든 물병에 맑은 물을 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흙탕물에 맑은 물을 많이 부으면 점점 맑아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앙굴리말라 같은 살인자도 부처님께 제도되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살인의 업보는 피해갈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여 괴로움 없는 저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세존] “촌장이여, 여래는 여러 방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 방편으로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사된 음행을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또한 남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아무

런 이익이 없는 이러한 악행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만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잘못을 되풀이해서 악업을 키우지 말고 악업 짓는 윤회의 사슬로부터 해탈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존으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받은 제자들은 이러한 악행을 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삼독심이 없는 상태를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四無量心)’입니다. 삼독심과 사무량심은 한마음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가꾸지 않으면 금방 탐진치 삼독심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삼독심은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삼독심이 강해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알아차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삼독심 없는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알아차림’ 하는 것입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바른 견해로 다스려야 ‘욕심내고 화낼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존] “촌장이여, 그 고귀한 제자는, 탐욕을 떠나고, 성냄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나 알아차림(sati)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알아차려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동쪽을 가득 채우며, 남쪽을 가득 채우며, 서쪽을 가득 채우며, 북쪽을 가득 채우며,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촌장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소라고동(법라)이 적은 노력으로도 사방에서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촌장이여,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에 의한 해탈이 이와 같이 수련되고, 이와 같이 성장하면, 유한한 업의 세계(유허계)는 거기에 남아 있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잘 수행된 마음은 탐진치가 적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은 많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탐진치를 줄이면 ‘소라고동이 적은 노력으로 사방에 들리는 것처럼’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정각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원정대성사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원정대성사께서 준제진언을 통해 체득한 영험의 구체적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체득한 영험이 무엇입니까? 수행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줄어들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은 많아집니다. 우리 종단의 의궤만 보더라도 원정대성사님의 사무량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심불이(色心不二) 원리에 입각하여 세간적 이익에 목말라하는 중생이 되 전하지 않고, 복지쌍수(福智雙修)할 수 있도록 세간적 이익의 성취를 위한 ‘준제관음법의 사중수법’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앞뒤로 참회와 오대서원,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

언으로 실지정진하게 하여 전체적으로는 출세간적 해탈이 이뤄지도록 의궤를 만드셨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재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궤가 중생을 자애하고 연민하는 마음없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10년 남짓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시면서 언제나 탐욕과 성냄없이 자비와 평정심으로 살아가신 모습이 영험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탐진치 없는 사무량심이 진정한 수행의 영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쟁에서 단신으로 수천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의 삼독심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셔서 욕심 화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훴.



법륜사 주교 승원 정사

##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마감 임박**  
**선착순 5명**

순례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 30일(토) 8박10일**

순례지역  
**인도·네팔**  
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라즈기르·바이살리·스라바스티·산카시아·쿠쉬나가르·아그라·타지마할 포함

순례비 : **2,990,000원** (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동참시 계약금 **300,000원**

부산은행 **023-13-001361-0** 포커스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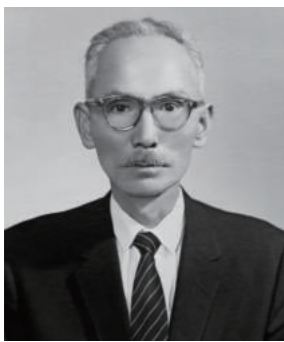
여권사본스캔+사진스캔본 제출 비자신청용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인솔자 남혜정사 010-9828-4083

포커스투어 010-9763-0700

# 육자대명왕진언을 수행의 중심이자 해탈의 근본으로 삼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3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세운 원정 대성사



육자대명왕진언 \_대성사 친필

써 완전한 교상이 확립되었다.”

혼돈 속에 출발했던 옛길과 달리 모든 것은 명확했다.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모시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삼고, 소의경전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의지했다. 태장계와 금강계 모든 경계를 더해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으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수행으로 삼고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지혜와 복을 함께 닦아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종교인으로서 현세를 정화하고 이 몸으로 즉시 성불하여 수행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옛날과 다른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 물질과 마음을 두루 닦도록 하며, 매 순간이 불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불공을 하여 생활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생활 속에 온전히 살아 종교적 수행과 현실적 삶이 일치되도록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총지종 창종의 깊은 뜻이다.

이날 대성사는 스승과 교도들에게 창종의 서원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自己敎化)에만 집착하기보다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大我的)인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현세정화(現世淨化)에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정진으로 종단의 유구(悠久)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結實)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總指宗)을 새로 세워 가르침을 펼치는 정신이 널리 밖으로 빛나 세계만방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복덕의 공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종도 모두가 훌륭히 나설 것을 서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일체중생을 위하는 대승의 길을 걷는 것이 밀교행자의 길이다. 그러므로 교도는 자기 수행과 세상 구제의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나아가갈 때 총지종을 세상에 펼친 정신이 널리 열릴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빛나도록 원을 세우자고 호소한 것이다.

대성사는 창종을 두 달여 앞둔 10월 3일에 준제관음상의 조성을 시작했다. 이전과 다른 수행을 위해 육자 본심진언과 함께 중생의 의지처로 준제진언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수행의 상승을 도모했다. 청정한 마음의 근본자리이며 세간의 고통을 두루 구하는 보살의 현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했다. 종단이 갖추어야 할 토대와 기둥이 망설임 없이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심중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11월 11일 총정로, 현 관서사에 교도들이 모이니 앞으로의 불사와 의식에 대해 구상해 온 뜻을 밝혔다.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 공양물은 헌화와 수향에 한하고, 정수와 촛불은 쓰지 않는다.

셋째, 법의의 의제는 신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이 깃을 밑까지 내려 만들고 소매는 작은 흥탁소매로 하며 색조는 백황홍흑의 네 가지 색으로 사중수법에 맞추어 착용한다.

넷째, 가사는 금가사로 한다. 흑자색지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으로 자수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 항부에 육합상이 보이며, 규격은 폭은 두 겹으로 만들어 반을 접은 것이 6센티 5푼, 길이는 140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가사와 법의에는 전면에 한 개씩의 4지결의 흑색 노끈으로 단추를 단다.”

그리고 11월 17일 처음으로 서울선교부에 육자진언 본존을 모셨다. 짙은 자주색 비단 바탕에 실담법자(悉曇梵字)로 된 육자진언을 금색실로 수놓아 금색 액자에 봉안했다. 진리의 본체이자 일체 생명의 근원인 법신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형상으로서의 불보살상이 아닌 문자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셨다.

‘옴마니반메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덕 가운데 하나인 관세음보살님의 깊고 미묘한 본심이자 가장 으뜸의 진언이기 때문이다. 유형무형의 진리의 모습을 불상이 아닌 진언다라니 그대로 본존으로 모신 것은 상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마음 본성의 깨달음을 추구하여 진리를 끈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법자 그대로의 진언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심으로써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중심 진언으로 지송하는 종단으로서 교의적으로도 완비를 기했다. 이로써 ‘옴마니반메훴’ 육자대명왕진언을 수행의 중심이자 해탈의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진각종을 세울 때 부족했던 안과 밖의 일들을 모자람 없도록 만들어 가르쳤다. 교도들과 스승들도 그 뜻에 감응하여 종단 일에

## 옴마니반메훴은 비로자나불 덕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본심이자 으뜸 진언

## 진언다라니를 본존에 모심은 상을 세우지 않고 마음 본성의 깨달음을 추구해 진리를 세움

진심을 다할 수 있었다. 종단에 필요한 경전과 의례, 법식 등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진 셈이다. 이와 같이 본존과 의식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므로 밀교종단의 틀이 다져졌다. 때를 같이하여 곳곳에 서원당이 마련되었으니 총지종의 태동은 창종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각교의 정진과 부처님의 가지력에 힘입어 정순하고 완전무결한 정통밀교 사상과 수행체계를 완성한 원정 대성사는 뜻을 함께 하는 교도들과 함께 서울선교부를 개설하

고, 1972년 12월 24일 정통밀교종단의 창종을 선포했다. 특히 옛 총지종(總持宗)과 달리 총지종(總指宗)으로 한자를 달리 쓴 것은 다라니인 총지(總持)로써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엇보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내세워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일상에 실천하는 생활불교임을 천명했다.

“법신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또한 태장계와 금강계 양계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여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眞)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였다.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병진법(物心併進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안을 세움으로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 봉안

##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 만다라의 이상 구현

2002년 10월 24일 총본산 총지사에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로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를 봉안했다. 원경 대성사는 일찍이 '우리가 본존으로 삼고 있는 육자진언주는 만다라를 총섭한 것으로, 마니는 보주로서 남성을 뜻하는 금강계요, 반매는 연화로서 여성을 뜻하는 태장계이며, 흠은 최파를 뜻하는 일체금강보살을 가리킨다'고 육자진언과 만다라의 관계를 역설했다.

잘 관찰하면 무량한 복지(福智)의 공덕이 취집되어 있다. 그리하여 신·구의의 삼밀이 원만하게 지배하고 있다. 즉 그 원만함을 우주간의 신체상 언어상 정신상의 모든 활동, 다시 우주 그것의 경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보리는 대일여래의 경지다. 우주의 삼라만상의 구석구석까지 대일여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자 곧 대일여래의 자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여래의 삼밀은 삼체를 통하여 시방에 편만하여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하다 함은 만다라에 무수한 불보살이 시현되어 있는 것이다. 만다라라고 하는 무대는 석존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특정한 좁은 장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보리심)를 가지고 더욱 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세계다.

『종조법설집』 중 「만다라의 기초지식」

대성사는 일체 제법을 구족한 본질 그 자체인 만다라의 공덕을 강조하고 창종 초기 현도만다라를 채택하고자 직접 도안하기도 했

으나 경전적 근거와 시대적 한계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종단에서는 총지종의 교의와 대성사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랫동안 양계 만다라 봉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작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통하고 여법한 만다라 제작을 위해 법장원에서 기초조사를 거듭하고 이에 맞는 불화 제작자를 찾아 한국전통불교회 등에 의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봉착하여 5년 이상 준비한 끝에 밀교 수행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티베트 현지의 SHAILA LAMA, KUNSANG LAMA 등 12명의 승려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마침내 권위와 위의를 갖춘 만다라를 봉안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복사본이나 인쇄본으로 만다라를 모신 적은 있지만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작한 만다라를 봉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계 만다라는 각각 가로 세로 2.6m의 정사각형으로, 태장계 만다라는 중심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한가운데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팔엽의 연꽃에 4불 4보살을 배치하는 등 모두 12대원(大院) 414존의 불보살님을 조성하고, 금강계 만다라는 근본회인 성신회(成身會, 갈마회)를 비롯하여 일인회(一印會), 삼매야회 등 9회(會)만다라 1,461존의 불보살님을 조성했다. 수많은 불보살과 호법성중이 둘러싸고 있음은 모든 존재가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임을 상징하는 것이며 뜻 생명의 조화롭고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 모든 진리가 법신불로 귀결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불사인 '금강계-태장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에 종단의 스승과 교도



2002년 10월 24일 총지사 만다라 봉안 법회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의 대표와 정계, 불교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축하와 찬사를 보냈다. 중생구제와 즉신성불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양계 만다라를 종단의 총본산 총지사에 봉안함으로써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의 교리와 사상 체계를 만방에 공표하고 종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밀교의 모든 작법과 직결되어 있는 양계 만다라를 종교적 대상으로 모심으로써 비로소 교상적인 면과 신행의례적인 면에서 완벽한 형태를 갖췄다.

법장원에서는 만다라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다라의 의미와 공덕, 종류 등을 사진과 함께 홍보 리플렛으로 제작 배포했다. 그리고 전국 사원에서는 차례로 진언밀교의 정수인 양계 만다라를 봉안했다. 2005년 백월사, 관성사, 덕화사, 2007년 수인사, 2009년 관음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 옴마니반메 흠 본존과 나란히 양계 만다라를 봉안하여 밀교 사원으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교도들의 신심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에는 만다라 전시회를 개최했다.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지사 2층 원경기념관에서 진행한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

은 총지종과 한네인투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한네팔대사관, 아시아 인권문화연대에서 후원했다. 원경기념관에는 금강계-태장계 만다라 10점을 비롯해 네팔 전통의 칼라차크라 만다라 20점, 별존 만다라, 아미타불, 관음보살, 파라보살 탱화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3층 서원당에서는 양계 만다라 친견 참배와 판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막법회는 종단의식인 유가삼밀, 실지정진과 함께 네팔의 불교의식을 함께 봉행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시 판매 수익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하여 네팔 난민촌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국 내 네팔노동자들을 지원했다. 전시회는 불교계 안팎의 대대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을 통해 화합과 조화, 상생을 상징하는 만다라의 의미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국과 네팔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계 만다라를 봉안하고 있는 종단의 만다라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만다라와 밀교 탱화 작품을 친견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불자와 일반 시민에게 밀교에 대한 관심과 종단에 대한 친근함을 불러일으켰다.

\* 만다라  
만다라(曼陀羅, mandala)란 본질적인 것, 최고의 것, 신성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각을 성취한 원만구족한 경지를 일컫는다. 즉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로, 무량한 복덕이 모여 있어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곳이자 부처님의 신구의 삼밀이 원만구족하게 정엄한 세상을 가리킨다.  
대일여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여 우주의 근본 진리와 부처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만다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이다.

\* 태장계 만다라  
태장(胎藏)이란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여래의 평등한 자비의 본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대보살을 그림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중대팔엽원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안에는 대일여래를 모시며 주위에 대일여래의 덕을 나타내는 보살, 무량수불, 개부화왕불, 천고뢰음불, 네 분의 부처와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네 분의 보살을 여덟 개의 꽃잎으로 형성하여 표현한다.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변지원, 지명원 등 모두 12대원, 414존상을 모신다. 태장계 만다라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아직 깨닫지 않은 보살, 번뇌가 끊어지지 않은 명왕과 신들까지 나름의 능력과 특성을 살려서 대일여래의 활동을 돕는다. 수많은 이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를 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금강계 만다라  
금강(金剛)이란 깨달음의 지혜의 몸이 금강석과 같이 견고하다는 의미로,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정경」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상징화하여 제존이 모두 금강송이라는 이름을 지닌 밀교 특유의 보살로 구현된다. 금강계만다라는 가로 세로 각각 3개, 모두 9개의 공간이 정방형의 도형 속에 싸여있다. 중앙에는 불신을 성취한다는 의미의 성신회(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의 갈마회라고도 함)에 4불 16대 보살이 모셔져 있고, 그 주위로 삼매야회 등이 둘러싸여 있다. 금강계 만다라는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중생에게 교화하는 과정이자 중생이 일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선정장과 비밀장

그동안 선밀상수, 혹은 선밀검수에 대해 화제를 지속한 것은 선과 밀교의 긴장을 해소해 보려는 심산이 작용한 탓이다. 경허선사의 향마전언은 선수행시 발생할 마장을 물리치는 불가피한 방편이었고, 조선시대 전쟁과 전염병이 일상이었던 시절에는 무명무주의 고혼을 천도하는 것은 선사들이 맡은 일상사였다. 선밀상수 못지않게 중요한 말은 선정장(禪定藏)인 것 같다. 『천수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에는 다리니는 지송하는 자에 대해, “이 사람은 선정장이니 백천 삼매가 항상 현전하기 때문이다[當知其人是禪定藏 百千三昧常現前故]”라는 경구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선정장은 대비다리니 송수에 한정된 수식어 가운데 하나이다.

민영규 소장본 『범서총지집』에 599종의 다리니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도 선정장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 서문을 쓴 자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전적을 해박하게 인용한 것으로 보아 당대 학식 높았던 최고의 아사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의 내용은 크게 다리니의 수승함과 다리니를 통해 선정에 드는 관행에 대해 설한다. 서문에서 인용한 선정장은 ‘다리니모음집’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보다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면 선사들이 다리니의 염송을 통해 누리는 삼매의 마당이라는 뜻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범서총지집』의 시작은 해인사본의 경우 소실지전언·입실지전언·출실지전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실지는 다리니의 염송을 통해 성취하려는 불사나 삼매를 가리키며 나아가 불신(佛身)을 포함하기도 한다.

민영규본 『범서총지집』에는 실지를 법신전언·보신전언·화신전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김수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해인사본은 의종 9년(1156-1166)대 출간되었고 민영규본은 고려 고종(高宗) 5년(1218)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양 판본의 시대적 차이는 크지 않다. 여기서 실지의 해석을 두고 약간의 논란이 벌어진 사실을 제대로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에는 계부선사(契符禪師)가 선정장을 최상승선이라 했으며 연수선사(延壽禪師)는 25도 진언으로 중생을 구하도록 했다고 한다. 여기서 실지와 삼신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진(道殿)의 『원통성불심요집』에서 한 선객이 지금의 선자들이 다리니 지송을 허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도진은 『전등록』에서 용수보살을 서천축 제14조로 삼고 준제진언을 선양한 것과 일행선사(一行禪師), 지자선사(智者禪師), 계부선사의 사례를 들고 있다. 도진의 활동시기를 고려하면 다리니에 대한 선자들의 거부감이 요송시대 이미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화성 봉림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나온 『범서총지집』의 경우 그 간행에 고려 수선사(修禪社) 해심(慧誼)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선사가 다리니를 배척한 것을 일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조계고승전』은 조선 후기 활동했던 보정이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계종 승려들을 기록한 전기이다. <조계종사대봉선사전>에는 대봉선사(大鵬禪師)의 기록이 있다. 선사는 속성이 김(金)씨로 순천 주암 출신이며 현종 7년(1841)에 태어났는데, 13세 출가하여 우담(憂曇)의 감속에 참모하여 경전을 배웠고, 침룡선사(沈龍禪師)에게서 선을 받았다고 하였다. 어지러운 시대였지만 선교(禪敎)가 여전히 온전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에는, “선사는 범자학(梵字學)에 능통하였고 주련과 다리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흔쾌히 곧바로 붓을 들었지만 한자(漢字)를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 번도 붓 잡는 것을 수락하지 않았다. 또한 시율(詩律)의 경우에도 기뻐하지 않았으니, 실로 본색납자(本色衲子)의 본분이라 할 만하였다”라고 하였다. 필력이 있으면서 다리니를 펴는 것을 선자의 본분으로 알고 승려의 시문을 부끄러이 여겼으니, 조선시대 현밀상수가 온전했던 대봉선사의 기록이 소중하지만 하다.

# 원정대성사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2>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제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궤 전승
- V. 결어

## II. 행장과 창종 이념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원정대성사의 행장은 일대기인 『불공잘해라』에 주로 나타나 있으며 대성사의 사상은 『종조법설집』을 중심으로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성사의 전기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성사의 전기에 대해 주요 사건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1기 : 1907-1935

**탄생과 성장기**  
원정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일직 손씨의 26세손으로 태어났으며 부친은 손기현, 모친은 이근호였다. 대성사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밀양은 의병활동의 주요 활동무대였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대성사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마치고 현대 고등교육도 받았다.

대성사의 성장기에 경험한 부친의 독립운동은 대성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친 손기현은 안창호, 이회영, 이동영이 주축이 된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운동기 건설에 동참해 1912년 만주 서간도로 망명하였고 이때 대성사의 나이 6세였다. 7년 후 일제는 봉오동 전투 패배로 인해 대대적인 조선인 사냥을 벌였는데 부친인 손기현도 주요 인물로 체포되었고, 대

성사의 부친 손기현은 자유시참변과 관련해 체포되어 모친 고문을 받았다. 1922년 가족은 밀양 인근으로 돌아왔고, 1924년부터 대구 중등교육기관인 교남(嶠南)학교에서 현대 교육을 받았다.

### 2) 제2기 : 1936-1952

**공직생활과 연구·수행기**  
대성사는 1927년 졸업할 당시 나이가 21세였으며 이때 강숙이(姜淑伊)와 혼인하였다. 1936년 대성사는 경남 함양군 학교비 위원회 서기가 되어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의 예산사무를 맡았고,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자 서기직을 사임하고 다시 만주로 이주하였다. 대성사는 하얼빈에서 법원 사무일을 시작하였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정미소 사업을 겸하여 크게 돈을 벌었다. 일제 패망 후 대성사는 미군정으로부터 밀양공립농잠중학교의 행정관에 임명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부터 대성사는 학교행정 등 공직에 몸담게 되었다.

### 3) 제3기 : 1953-1971

**진각종 입교와 교법 정립기**  
대성사는 경상남도 밀양을 지방주사로 승진하였다. 대성사가 밀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회당(梅堂) 손규상(孫珪祥) 조사를 만난 것이었다. 회당대종사는 1947년 5월 대각(大覺)을 얻은 후 경상북도 일대에 서원당을 세우고 참회원이라 하였다. 1953년 8월 24일 심인불교건축위원회는 ‘대한불교진각종 심인불교 보살회’로 전환하여 인회(印會)를 결성하고 회당대종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회당대종사가 표방한 것은 심인불교(心印佛敎)로 밀교에 속했다. 대성사는 밀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1953년 9월 30일 공직에 사표를 내고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대성사는 11월 2일 정사 후보로 임용되어 시취(試取) 스승, 정사보(正師補)를 거쳐 1955년 4월 13일 정사로 승진하였다. 1956년 대성사는 회당대종사가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심인당의 스승으로 봉직하였고, 그해 12월 진각종의 초대

사감의 직책을 맡았다. 회당대종사와 대성사는 본격적인 종단의 체계를 세우고 역경에도 힘썼다.

1963년 회당대종사가 대구 침산동 심인당(현 불승 심인당)에서 열반하였다. 다음해 1964년 총인직을 신설하고 진각종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대성사는 초대 총인이 되었고, 하월곡동 대지를 마련해 현재 진각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 4) 제4기 : 1972-1980.7

**총지종 개종과 종학 정립기**  
1968년 해인사에서 열린 한일불교대회가 계기가 되었다. 대성사는 준제관음법(准提觀音法)을 제시하였으며 한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1971년 12월 대성사는 총인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고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거소에 은거하였다. 대성사는 100일 불공에 들어갔고, 1972년 4월 4일 원정대성사는 백발 노인으로부터 금관을 전해받고,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1972년 6월 28일 기로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선교부 응신서원당을 거쳐 상도동에 칩거하면서 자신의 과제로 삼았던 진각종의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진력하였다.

1972년 9월 9일 대성사는 밀교수행법의 방법과 공덕을 담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소의전적으로 삼아 비밀불교의 의궤를 제정, 공포하고 전수를 시작하였다. 11월 17일 최초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추존했다. 1972년 원정대성사는 뜻을 함께 하는 교도들과 서울선교부를 개설하고 그해 12월 24일 정통 밀교종단으로서 총지종의 창종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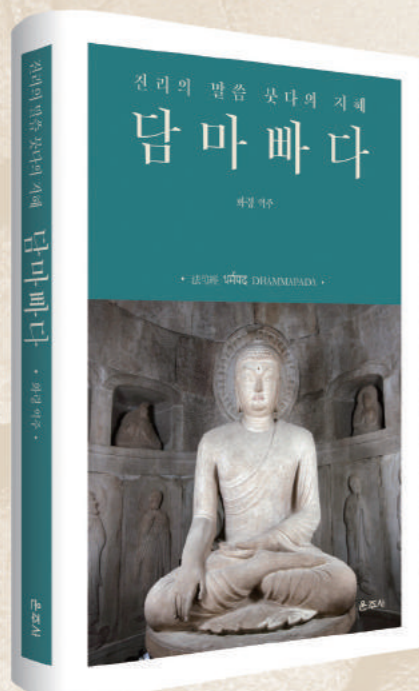
### 5) 제5기 : 1980.7-1980.9

**부족과 열반**  
대성사는 1980년 7월 18일 모든 공직에서 퇴임하고 같은 해 9월 8일 총지종의 교세와 전법을 부족하고 입적하였다.

정성준, 전 티벳대장경역권

#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 한중일대화·세계불교포럼 등 주요사업 결의

## 종단협, 7월 18일 제2차 이사회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진우 스님)가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 '제6차 세계불교포럼' 등 올 하반기 주요사업을 결의했다. 종단

협은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사회에는 부회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 차석부회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를 비롯해 재직 이사 39명 중 33명(위원 6명)이 참석했다.

회의 중 단 간 화합과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해외성지순례'는 8월 26~30일 중국 오대산에서 진행된다. '제24차 한중일 불교대회'는 10월 29~30일 일본 야마나시 현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에서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다. 중국불교협회 주최하는 '제6차 세계불교포럼'은 10월 14~19일 중국 절강 성 닝보시 설두사에서 열린다.

회의에 앞서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협은 유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포교와 전법 수행 및 사회적 현안을 함께 논의해 가자."고 소속 종단 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 통리원장 우인 정사 2024 회당문화축제 참석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진각종 초청으로 울릉도에서 지난 7월 24일 개최된 '2024 회당문화축제'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 종조전을 방문해 참배하고,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 문체부 정응욱 종무실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 철저히하라”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불교 역사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일로 승가대중의 결의를 모아 파사현정의 가치를 높이 세워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관	자	재	보	살	운	전	면	허
람			비	누	칠			히
열	무	김	치		기	정	사	실
차	말		장	뇌	삼			실
	응	이	삼		부	부		
성		명	이	나	물		메	
불	가	침	사		꼬	부	랑	길
	는	공		들	스			라
격	세	지	감		보	일	러	잡
	월	대	흔	잡	기			이

## 자기주도적인 삶을 찾아

인디언들에게는 용사(勇士)들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사내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사냥과 정찰(偵察),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과정을 거쳐 열세 살이 되던 날 밤에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한다.

즉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날엔 소년을 울창한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소년의 눈을 가리게 한 후, 소년을 마을에서 수마일 떨어진 외딴곳에 데려다 놓는다. 소년이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자신이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겨진 것을 알고는 겁에 질리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야말로 삶의 기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일의 출발을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의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중간 점검을 하는 주도면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 행위는 판단력이나 결정력 부족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

특히, 직장인들에 있어서, 소속 집단에서 인정받거나 못 받느냐는 것은 일의 결과에 기준을 두기 마련이다. 같은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 보면 의외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虛費)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는 대부분 자발적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므로, 자기 판단에 의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있다. 일 처리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사람은 완벽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창의적 과정을 소홀히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방이라도 맹수(猛獸)가 튀어나올 것 같은 울창한 숲속에서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소리를 내고, 소년은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지낸다. 소년은 혼자 있다는 두려움에 숨막히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동이 트고 첫 햇살이 숲속에 비춘다. 그때 소년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꽃과 나무들, 그리고 오솔길이 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를 정작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소년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밤새도록 아들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노릇을 하고 함께 밤을 지냈던 소년의 아버지이다. 바로 '아버지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다.

말무드에서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면 당장은 살 수 있으나,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산다.」고 했고,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스스로가 선택하여 실행하지 않는 행위(行爲)는 삶에 있어

일의 출발은 신중히 하고, 과정을 중시하되, 결과는 분명해야 한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자발적 노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수행이라야 의의가 있다. 과거의 뒷받침이 없는 오늘은 모래 위의 성(城)과 같은 것이 되고, 오늘을 무시한 미래란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추구해 가야 할 가치로운 삶은 자기 주도적인 가치관 아래 능동적 창의성을 가지고 진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7/7	50,000	덕화사	법상인	7/18	20,000	시범사	해광	7/13	10,000	제석사	김옥희	7/1	10,000
관성사	우인	6/24	10,000	동해사	법선	6/24	10,000		이순영	7/13	20,000		안선민	7/1	10,000
	보명심	7/18	10,000		김진화	7/8	10,000		정우석	6/26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7/2	80,000
국광사	지명	7/1	10,000		강명순	7/2	10,000		황성녀	6/27	10,000		유은혁	7/5	10,000
	지명	7/19	10,000	만보사	홍도열	7/8	10,000	실지사	유승우	7/8	10,000		백귀김	7/10	10,000
	공덕성	6/24	20,000		이중구	7/11	7,000		이도현	7/8	10,000	총지사	최영아	7/10	10,000
	수증원	6/24	10,000		김길희	7/19	10,000		이서현	7/8	10,000		김정환	7/11	10,000
	밀공정	6/24	10,000	밀인사	박길선	7/10	10,000		이루나	7/8	10,000		신현태	7/19	10,000
	선도원	6/24	10,000		덕광	7/10	2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6/26	80,000		김평석	6/21	10,000
	법지원	6/24	10,000	밀행사	행원심	7/17	10,000		정동숙	6/27	80,000	통리원	남혜	6/24	10,000
	일성혜	6/24	10,000		이은별	7/17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6/27	80,000		김평석	7/9	10,000
	사홍화	6/24	10,000	법천사	반아심	7/1	10,000		서영주	6/27	10,000	해정사	안재석	7/1	10,000
	안주화	6/24	10,000		인선	6/24	10,000	양지제1복지관	서영주	6/27	10,000		신선미	7/1	10,000
	진일심	6/24	10,000	법황사	정계월	6/24	10,000	운천사	무명씨	7/12	30,000		강동화	7/1	10,000
	시각화	6/24	10,000		박미경	6/25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6/25	80,000	화음사	박대영	7/1	10,000
	최상관	6/24	10,000	벽룡사	승원	6/24	10,000		연명구	6/27	20,000		박대성	7/1	10,000
	연등원	6/24	10,000		요원화	6/24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6/26	80,000		무명씨	7/2	10,000
	자선화	6/24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7/1	80,000		김점남	6/27	20,000		박옥자	7/7	10,000
	승효제	6/24	10,000	사원명무기명	하명순	6/25	10,000	정각사	탁상달	7/9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7/10	80,000
	주신제	6/24	10,000		박필남	7/15	10,000		노점호	7/17	10,000				
	총지화	6/24	10,000	삼밀사	묘홍	7/19	10,000	제석사	안한수	7/6	10,000				
	해정	7/19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박현정	6/25	20,000		이진순	6/30	10,000				
단음사	진여	6/25	10,000		나석원	6/25	50,000		안용준	7/1	10,000				
단향사	지홍	6/21	20,000	수인사	법상	7/18	20,000								
	지홍	7/17	10,000												

\*포함 대련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7/19 10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㉓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 유마경에 나타난 생태사상2

수보리여, 음식에 대해 평등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 평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해 평등할 수 있으면 음식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걸식을 할 수 있다면 가히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유마경 제3 제자품> 중에서

음식에 대해 평등하다는 말은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누가 준 음식인지 등을 분별하지 않고, 그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하리라.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식재료가 있다. 이런 맛과 음식에 대한 차별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무수히 많은 경계와 만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낸다. 이것이 12연기의 핵심인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의 과정이고 이로써 윤회하게 된다. 따라서 일체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양면을 여의어야 한다. 이것이 중도인데 중도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오늘날 맛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비만이라는 성인병의 원인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육식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이 증가하고 가축에게 먹일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아마존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 가축의 배설물은 생태계를 오염시켜 축산단지 인근의 강과 바다가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존이 되기도 한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태평양 섬들

이 바다에 가라앉고, 전 대륙에서 산불과 홍수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고 있다. 올 6월,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폭염을 겪었으며, 그 결과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바람과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과 갯벌 해양 등 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식을 하면 가축의 배설물과 소와 같은 되새김동물의 방귀와 트림에서 메탄이 나오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1배이상 높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서 아마존의 밀림을 지키는 일이고 생태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고기 맛에 탐착하지 않고 음식에 대해 평등한 마음으로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기후위기시대의 바람직한 식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하여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상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이를 비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또한 평등한 마음이라 할 수 없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하였다. 걸식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을 수 없다. 주는 대로 먹는 것이다. 특히 부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이를 차별하지 말고 차례로 걸식을 하도록 계율로 정하셨다.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사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중요한 수

행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과 상가에서 걸식을 할 때 고기나 생선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 드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질고 잔인하고 등 뒤에서 험담하고 /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오만하고 / 인색하여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 자들 / 이런 것이 버린 것이지, 육식은 버린 것이 아니다. / 숫따니빠따 제2장의 두 번째 경 <마미간다 숫따 버린내> 중에서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모든 육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3정육이라고 하여 나를 위해 죽이는 걸 보았을 경우,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고기만을 드셨다. 정육점이라는 말은 이러한 경전에서 유래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선택하지 않는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하되 채식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주어진 음식을 먹어야 할 경우에는 유연하게 먹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공양게송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에 탐착하지 않고 약으로 알고 먹는 것이 음식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計功多少量彼來處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忖己德行全缺應供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防心離過貪等爲宗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正思良藥爲療形枯  
도움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爲成道業應受此食

###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With Dharma

## 두 번째 화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했다. “몹시 아프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 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 대응이다. 세상의 많은 성인들이 말하길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고통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다.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하며 그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가시킨다.

류시화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있는 내용이다.

“한 여성이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만나지 못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썩을 공간이 없

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얼어붙었으며, 모든 관계가 제한적이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인생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를 찾아온 그녀는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거나 숨으면 그만이지만, 자신에게 쏘아대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길이 없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는 지름길이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 대기에는 우리의 남은 삶이 너무나도 짧다.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독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을 정신적 고통을 주며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삶이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고통에 대한 어리석은 대응은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들의 ‘업’이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나의 ‘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이 우주법계 어딘가에 남겨진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간 모든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진 등불의 문화사 연등문화의 역사



오대혁 · 백창호 지음  
152\*220 | 538쪽  
컬러 무선 제본  
담앤북스 | 2024년 5월 2일  
출간 | 36,000원

부처님오신날 밝히는 연등은 연꽃 모양 등 [蓮燈]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등불[燃燈]을

말하는 걸까, 우리나라의 연등회는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연등회는 원래 부처님오신날 행사였을까?

이 책은 한국전통등연구원 백창호 원장과 오대혁 연구사가 한국 연등회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진 수천 년의 등불 역사를 종교·정치·민속·문학·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살피면서 연등문화의 고갱이만을 담았다.

### 총지사 교도 광고

#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 행복ON! 소통ON! '모두 가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 양지동제1복지회관, 다문화 가정과 매화동범마을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우인 정사)이 위탁 운영 중인 양지동제1복지회관(원장: 정동숙)이 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함께 '모두가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충청남도 태안의 매화동범마을로 다녀왔다.

성남시 양지동 및 은행동에 거주하는 10가정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도우미로 참석한 가운데 재미와 위로, 힐링의 시간을 두 배로 나눴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사의 기부사업 '행복ON! 소통ON!♥'에 응모하여 선발돼 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 참석자들은 도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그리고 마을에서 자란 쌀과 팥으로形形色색 가족만의 짬뽕 '삼생쌀짬뽕'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마을에서 준비하고 직접 조리한 밀반찬들과 전문 강사를 섭외해 개인별, 가족별, 연령별 다양한 게임으로 첫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새로운 친구들과 이웃을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캠프파이어에서는 타오르는 큰 불꽃 앞에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나누기, 부끄럽고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서로 다독이며, 힘의 기회를 통한 가정 구성원과 이웃이 돈독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갔다.

정동숙 원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외의 지속적인 자원 발굴과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느끼고 알게 된 많은 정 보들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켜 더 견고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다문화 가정 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일상에서 서로가 느끼는 고충을 나누며 가족원 간 소통능력을 향상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친화력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가족의 기능 강화와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석관실버복지센터, 이웃에 자비 나눔 경희대 청년들과 관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 6월 27일, 경희대학교 청년기획부서단 소노베이크스와 함께 석관동주민센터에 생활용품 세트 총 60개를 자비나눔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석관실버복지센터 소속 석관니어스봉사단, 경희대학교 청년기획부서단 소노베이크스, 석관동주민센터 정창섭 동장,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전상일 위원장, 김희자 감사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석관니어스봉사단과 지역사회 자원 나눔을 통한 세대공감 및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청년기획부서단 소노베이크스와 협약을 체결, 석관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기부물품을 지원해 왔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을유생 자심해 영식 (총지사 교도, 7월 24일 별세)

---

**고맙습니다**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부산경남 신정회지회 회사

---

**보현 전수미 총지스케치**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㉔			②			㉕
			③						
④	㉖					⑤			
			⑥	㉗					
	⑦					⑧	㉘		
㉙			⑨			⑩			
⑩	㉚					⑪	㉛		㉜
			㉝						
⑫						⑬			
			⑭						

- 가로 열쇠**
-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말
  -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을 내어 주는 것
  - 옷이나 몸에 묻은 때를 씻어 내기 위하여 비누를 문지르는 일
  - 열무로 담근 김치
  - 이미 결정된 사실
  - 사람이 심어서 기른 산삼
  - 나무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
  - 결혼한 한 쌍의 남녀
  -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인 산마늘의 다른 이름
  -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이리저리 많이 구부러져 나 있는 작은 길
  -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에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
  - 난방 시설이나 목욕탕 따위에 더운물을 보내기 위해 물을 끓이는 시설
  - 아주 많은 것들이 한데 뒤섞여 매우 어수선했
- 세로 열쇠**
- 철길 구간을 따라 달리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만든 작은 전동차
  - 비료를 부림
  - 운이 칠 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삼 할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음을 이르는 말
  -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 실리를 얻는 계략
  - 야채나 당면을 김에 싸서 튀김옷을 묻혀 튀긴 음식
  - 장미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불교를 얻음
  - 진전이 없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푸는 실마리나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
  -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어 늙게 된다는 말, 00 00, 오는 백발
  - 다른 사람과 의견, 감정, 생각, 처지 따위에 대하여 서로 같다고 느끼는 부분
  -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음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잘게 부스러진 찌꺼기
  - 앞에 나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사물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만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용종야호사'로써 국태만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뽕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철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필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정3길 20-1 (구정동)	(051)416-7434
체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곡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친구들과 어깨동무, 한여름 이겨내고 한 뼘 자란 신심

### 2024년도 '총지종 한마음 여름 캠프' 용인 에버랜드 일대 2박 3일 개최

청소년을 위한 2024년도 '불교총지종 한마음 여름캠프'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용인 에버랜드 일대에서 개최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지막날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모든 순간 특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동해중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전국 사원 교도 자녀 등 선발된 청소년 총 100명이 참석했다.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 사무국장 남혜 정사를 비롯해 범수연 전수, 보명심 전수, 법선 정사, 해광 정사 등 스승들이 직접 행사장까지 학생들을 인솔했다.

일에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하루를 보내며 집을 떠나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학업에서의 지친 신심을 달랬다.

참석자들은 회향에 앞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기회가 되면 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질문에 설문 작성자 전원 '네'라는 응답으로 내년을 기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 물놀이와 놀이공원을 답했으나, '불교체험', '작가님과 함께한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친구들과의 추억 생성' 등의 답도 나왔다. 특히 추가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8배,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 장기자랑, 다함께 레크리에이션, 인근 문화지(재) 탐방 등 신선한 아이디어도 남겼다.

첫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사무국장 남혜 정사의 집공으로 입재식이 진행됐다. 총무국장 록경 정사는 "캠프 기간 동안 안전 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좋은 추억 담아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입재에 앞서 범수연 전수는 참석자들에게 종단과 불공법에 대해 소개했다.

최장우 학생은 "놀이기구를 함께 타면서 스릴과 즐거움을 느끼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며 "겨울이든 여름이든 다시 참여하고 싶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해중학교 행정실장 법선 정사는 "학생들이 이번 한마음 캠프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참석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내년에도 만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참석 학생들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청소년 교회의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재 후 첫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강의가 마련됐다. 제14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네임스티커'의 황보나 작가가 강사로 초청돼 '생각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그림동화책 '곰씨의 의자'를 바탕으로 한 브레인 스토밍, 이야기 창작 등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청소년들은 열띤 질의응답과 발표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성장해 나아갔다. 첫날은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해 여름 스포츠 활동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날 2

이번 행사는 불교총지종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일불교교류협의회, BBS불교방송, 불교TV BTN이 후원했다. 용인=박재원 기자



100일 불공으로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수험생들을 위한 발원문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삶의 바른길을 광명으로 밝혀 주시는 부처님!

이제부터 수험생들이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겸손과 끊임없는 정진의 힘을 갖게 하소서

잠시라도 무기력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의 광대하신 원력과 씩씩한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인욕의 마음과 깊은 선정의 힘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잠깐이라도 좌절과 실의에 빠져 힘겨워할 때는 부처님의 금강석과도 같은 용기와 불퇴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이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갖게 하여 그간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서원합니다.

시험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동참 원력이 함께하기에 시험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안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총기 53년 8월 6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